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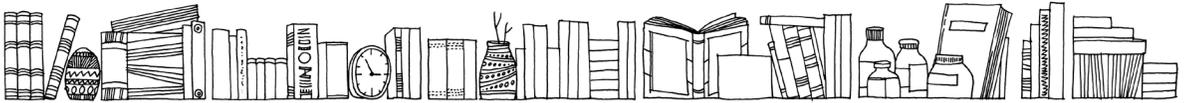


새롭게 시작하는 제천간디학교!

우리들의 '큰 발'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작지만 굳건한 발로 열심히 달려오신 양 쌤에게  
바통을 받아, 앞으로는 투박하고 듬직한 손 썰미의 발이 달리게 되었지요.  
잘 달려와 주신 양 쌤께는 박수를, 이제 열심히 달려가실 손 썰미는 파이팅을  
외치며 간디학교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갈지 기대를 해 봅니다.

-최해님 편집장(5학년)



### 차례

여는글	2	표지 사진이 좀 거슬리시셨나요?
특집 1: 논문 잘 돼가?	4	
	5	그대가 16살이라면...
	8	논문 파티? NO! 파티가 아닌 축제가 되길 바라는 이유
	11	논문이 학교에 기여한 것들
특집 2: 가을 축제 '지구종말대축제'!!!	13	
	14	지금 느낌이 어때
	17	이공일이년 일공월 일삼일 흠요일
	20	뜨거운 감자! 가을 축제 폐지론 - 찬성과 반대, 그 갈등 속에서
반가워요 후원인	22	언제나 든든한 '뺨', 홍수연 후원인
간디IN이 만난 사람	25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배움 속으로	29	무엇이 무엇이 재밌을까♪
우리끼리	34	왁자지껄, 사감 썰 방 탐방기!
사설	39	일반 과자,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간디인 톡톡	42	필리핀에서 온 엽서
간디인 짧은 소식	44	9월 · 10월
기자 후기	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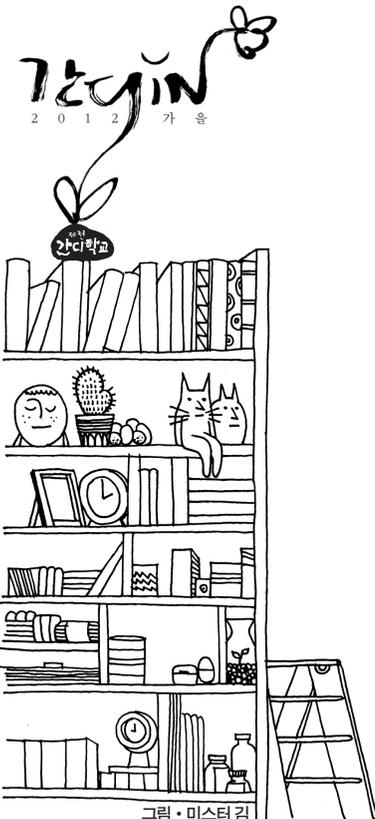


그림 · 미스터김

# 표지 사진이 좀 거슬리셨나요?

김정환(일상다반사 담당)

표지 사진이 좀 거슬리셨나요? 그럼 저희 학교 축제에 놀러 와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과 어울려 밀양 백중놀이의 범부춤과 싸이의 말춤을 퓨전해서 한바탕 노는 학교입니다. 학교 소식지 표지로 1·2대 교장 선생님 발 사진이 올라가는 정도의 일은 일상다반사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손진근 교장 선생님은 아직도 점심 시간에 축구하는 걸 즐기십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쳤을 때 교사 개인적으로 책임져야 될 때를 대비한 보험도 있다는 사실을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우리 교장 선생님은 아이들과 격렬한 축구를 즐기십니다. 몸싸움하다가 넘어진 아이를 달래는 교장 선생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현실과 상상의 경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번 가을 호에 실린 기사들이나 준비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들은 이런 학교의 엉뚱하고 ‘비현실적’인 모습들이 잘 담겨 있습니다. ‘우리끼리’는 생활관 생활 썸방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일들을 담았습니다. 어느 가을 날 주말 10시에서 10시 45분 사이에 여자 생활 썸방 미리 썸방을 방문한 인원이 무려 35명입니다. 어떤 친구는 생활 썸방에 숨으러, 어떤 친구는 생활 썸방에 숨은 친구 잡으러, 어떤 친구는 그냥 수다 떨고 싶어서 ‘그냥’ 들렀습니다. 사감 선생님 호출로 사감 선생님 방 앞에서 머뭇거리며 군대식으로 ‘똑똑똑’ 세 번 정확하게 노크 후 “몇 학년 아무 개입니다. 무슨 무슨 용무로 찾아왔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를 경험해 보신 분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배움 속으로’에서는 줄곧 수업 외 배움, 학교 밖 배움에 대해 취재하다 오랜만에 다시 학교 수업을 취재했습니다. EBS 지식채널로 배우는 사회, 수화, 농구, 뮤직 비디오 만들기, 합창, 만화, 요가 수업에 기자가 직접 참여해 취재 하였습니다. 가을 호 기획회의에서 힙합과 서예 수업은 ‘식상’하기 때문에 제외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다양한 배움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다 보니 어느새 힙합과 서예 수업은 ‘식상한’ 학교가 되어 버렸습니다.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지만 ‘트럭샷’을, 학교 리어카에 촬영하는 사람을 싣는 것으로 대신해 뮤직 비디오를 제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즐겁기만 합니다. 물론 1학년에서 6학년을 관통하는 나뭇 체계적인 ‘프로젝트’ 수업이나 수학과 영어와 같은 필수 수업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문화센터나 구청 복지관 무료 강습들과는 다릅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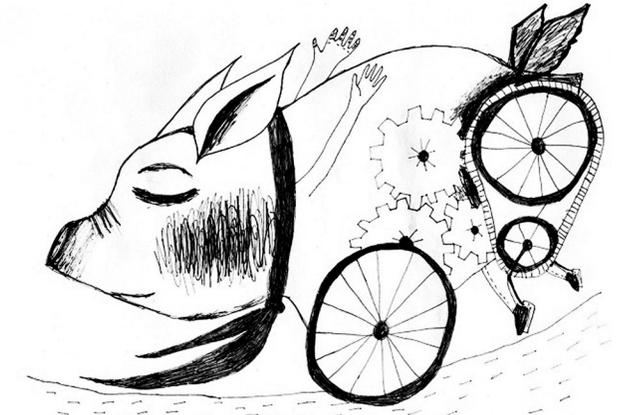


그림 · 이기원(2학년)

‘반가워요 후원인’의 취재 과정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었습니다. 기획회의 중 잠시 잡담을 하고 있는데 김예림 기자가 치과 치료받은 이야기를 하다가, “아, 맞다! 이번에 치료해 주신 치과 의사 선생님이 학교 후원인이셨어요.”로 시작되어, 이번 ‘반가워요 후원인’의 주인공이신 홍수연 님이 성미산 학교의 학부모님임을 알게 되었고, 마침 성미산 학교 축제가 있어서 취재는 성미산 학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인터뷰 중 종영된 드라마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아버지로 분한 정인기 님이 강림하시는가 하면, 홍수연 님께서 그날 또 집 이삿날이어서 취재를 맡은 임소현 기자는 홍수연 님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한 관심과 후원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는 자리가 한 편의 여고생 로드무비 ‘불청객’이 되어 버렸습니다. 홍수연 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논문’에 대한 특집 기사는 기자 2년차 김예림 기자의 ‘포텐 터진’ 기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학교 소식지를 만드는 일상다반사 신입 기자 모집에 제출된 응시원서라고 할 수 있는 응시자들이 직접 작성한 글을 잃어버려 회의 시간에 울음을 터뜨린 게 엇그제 같은데, 우리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논문’이라는 교육과정을 상세히 전달하고자 기획회의에서 나온 모든 아이디어를 기사화시키는 기업을 토했습니다. 3학년 담임 썸방 인터뷰하고, 2학년들이 3학년들을 위해 준비하는 논문 파티에 대한 생각을 알기 위해 전교생을 설문 조사하고, 논문 파티의 문제점을 진단해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논문을 준비하는 3학년의 일상을 소개하기 위해 3학년 선배들을 모아 함께 사진을 연출하고, 페이스북 북에서 오고 간 3학년들의 논문에 대한 푸념과 3학년 학생의 2학기 실제 시간표와 그동안 논문이 학교에 준 변화까지, 두 명의 기자가 달라붙어도 힘들었을 일을 이제 중학교 2학년인 김예림 기자 혼자서 거뜬히 해냈습니다.

언제나 나른했던 국어 시간.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서 아저씨가 어머니한테 준 ‘달걀’에 형광펜으로 네모 반듯이 표시하고 ‘중요’라고 적으며 뿌듯해 하던 저의 중학교 2학년 시절과 김예림 기자의 2학년을 비교하면서, 안철수 대선 후보 대선 출마 선언의 백미였던 ‘미래는 이미 와 있다. 아직 널리 퍼져 있지 않을 뿐이다.’라는 말을 연상하는 것은 무리수일까요? ☹



# 특집 1: 논문을 잘 왜가???



'아...논문...!'

매년 이맘때쯤 학교에서는 이상한 분위기가 감돈다. 왠지 피곤해 보이는 표정, 기운이 짝짝 빠지는 한숨 소리들, 전산실에서 죽치고 앉아 페이스북과 웹툰, 한글문서를 왔다 갔다거리는 모습들. 이 모든 일의 원인은 논문에 있다. 그런데 3학년들이 논문을 쓰느라 정신없이 다닐 즈음 2학년들에게도 무언가 부산스러운 움직임이 보인다. 많은 사람들이 논문의 끝이라고 알고 있는 논문 발표 뒤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



## A... 논문.....



# 그대가 16살이라면...

라디오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제가 16살이 되니까 엄마가 고등학교에 가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저를 달달 볶아요~!" 간디학교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간디학교의 16살들은 지금 고등부에 진학하기 위해 논문을 쓰고 있다. 올해 간디학교의 16살들은 어떤 논문을 쓰고 있을까? 3학년의 담임 선생님인 상현 쌤을 찾아가 보자!

김예림 기자(2학년)



Q. 안녕하세요, 현재 논문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A. 음, 그다지 좋지 않아요. 지금 논문 발표까지 25일 남았고, 그 중간에 추석이 켜 있어서 실제로는 2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논문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막바지 작업에 들어가지 않은 아이들이 많아서 담임으로서 좀 불안하고 슬프네요(웃음). 잘 하는 사람은 지금 마무리하면서 잘 하고 있지만, 몇몇 아이들은 '논문 불통되어도 2차

통과하면 되지 뭐~' 하며 손을 놓고 있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런 일은 매년 비슷하게 일어나는 것 같네요.

Q. 그렇다면 현재 아이들이 논문을 쓰며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A. 아이들은 항상 좋은 논문거리를 찾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주제를 잘 잡아서 목차를 짜고 그대로만 논문을 써 내려가면 50%는 쓴 거나 마찬가지

이름	논문 제목	형태	지도교사
1 강도운	밥풀들, 햇반이 되기까지-3년을 추억하는 졸업 기념집 쓰기	작품	장희숙
2 권 산	간디인들의 SNS 사용 문제점 알아보고 대안 제시	연구	변소영
3 김고운	나만의 창작 그림책 만들기	작품	김태진
4 김소아	나와 지구를 살리는 건강하고 착한 빵 만들기 - 우리 농산물로 순식물성 빵 만들기	연구	김정환
5 김푸른하늘	음악 활동에 있어서 대학의 필요성 연구 및 분석	연구	황선호
6 김한새	(가제)K리그, 시민구단의 활성화	연구	손진근
7 안현선	도판 작업으로 학교 공간 아트 문패 만들기	작품	김태진
8 양성민	공정무역 커피 소비 가능성 알아보기	연구	강희석
9 양지훈	2층 교실 복도에 벽화 그리기	작품	김태진
10 유준상	여러 장르의 핑거스타일 곡 만들기	작품	송민혜
11 은형근	새로운 방식으로 차 만들어 기존의 차와 비교하기	작품	김현숙
12 이건산	간디 가족의 밀가루 식습관에 대한 연구 및 대안 제시	연구	김수자
13 장혜린	천연효모로 건강한 빵 만들기	작품	변소영
14 전 진	간디학교 안에서 폭력 발생 원인과 해결 방안	연구	강미리
15 정나린	페어리 케이크, 나만의 컵 케이크 레시피 만들기	작품	박후조
16 조영서	(가제)내 경험을 바탕으로 소설 쓰기	작품	장희숙
17 조하한	하한 0.1집, 어리다 하기엔...	작품	황선호
18 황소윤	(가제)간디 블루스 만들기	작품	황선호
19 한 별	베트남 전 한국군 민간인 학살에 대한 간디인 인식 변화 시도	연구	손진근
20 김채현	영유아 오감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오감놀이 가이드북 만들기	작품	강미리

지라고 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그걸 가장 어려워해요. 또 그만큼 어렵기도 하죠. 그래도 아이들이 대견한 건 1학기에 논문쓰기 수업을 했을 때는 통 관심도 없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더니, 논문을 쓰면서 한두 명은 '아, 이래서 학교에서 3학년 때 논문을 쓰라고 하는구

나.' 하고 깨닫는 것 같아서 기특해요. 이런 아이들이 좋은 주제를 잘 잡아서 담당 선생님과 얘기하고 맞춰나가는 아이들이죠. 보통은 담당 선생님들의 충고가 자신의 의견과 맞지 않아서 선생님을 잘 찾아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점을 듣고 속상해 하

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논문 주제 잡는 것을 가장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Q. 매년 고등부 선생님을 하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중등부 담임을 맡으셨는데, 중등부 교사가 되어 뿌듯한 일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제가 산청 간디학교에서 고등부 3년, 제천 간디학교에서 고등부 3년을 맡고 간디학교 교사를 한 지 7년째에 처음으로 중등부 교사를 맡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등부를 맡을 때는 애들이 이미 다 커 버려 졸업할 때도 별다른 느낌은 없었는데, 중등부는 지금부터 많이 클 테니 그 애들이 학교를 졸업한다면 내가 그 과정을 모두 지켜본 담임이니까 뿌듯한 기분이 들 것 같아요. 또 고등부는 진로를 고민해야 할 때라서 조금 긴장감이 있지만, 중등부는 재미있게 놀기만 해도 괜찮다 보니 편안해요. 일단 중등부에 와서 무빙(움직이는 학교) 때 3학년끼리 함께 긴 여행을 했다는 점이 참 뿌듯했었고, 이제 3학년들이 논문 발표를 잘 끝마친다면 그 순간도 뿌듯할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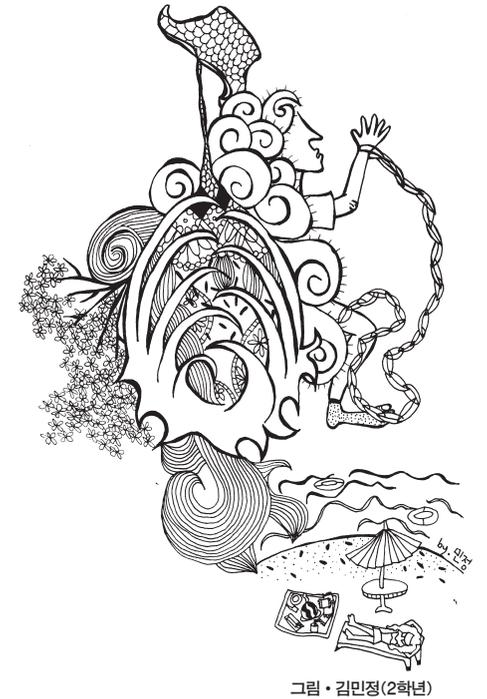
Q. 아이들이 논문을 쓰기 전과 후의 달라진 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뭔가를 이뤄 내는 경험. 논문은 아주 힘들어요. 지금까지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대충하고 포기해도 괜찮았지만, 논문은 꼭 해야만 하는 일이니깐 그 목표를 이루어 내는 과정에서 달라지는 점이 많이 보일 것 같아요. 또 지금 논문을 쓰고 있는 3학년들은 아직 논문을 끝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논문을 써 봤던 고등부를 보면 논문의 영향으로 고등부 생활이나 프로젝트들이 한결 수월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들도 기왕 하는 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좋겠네요.

Q. 마지막으로 열심히 논문을 쓰고 있는 3학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너희가 논문을 쓰면서 어렵기도 하고 스트레스받는 건 다 알아. 근데 너희들의 목표를 꼭 이루어 냈으면 좋겠어. 포기하지 말고. 올해를 넘겨서까지 논문을 쓰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고, 논문을 쓰면서 때로는 울고, 스트레스받겠지만 너희들은 잘 해 나갈 거라고 믿어! ◀:D

바쁘신 와중에 인터뷰에 응해 주신 상현 쌤 감사드립니다.  
논문 1차 통과를 향해 모두 파이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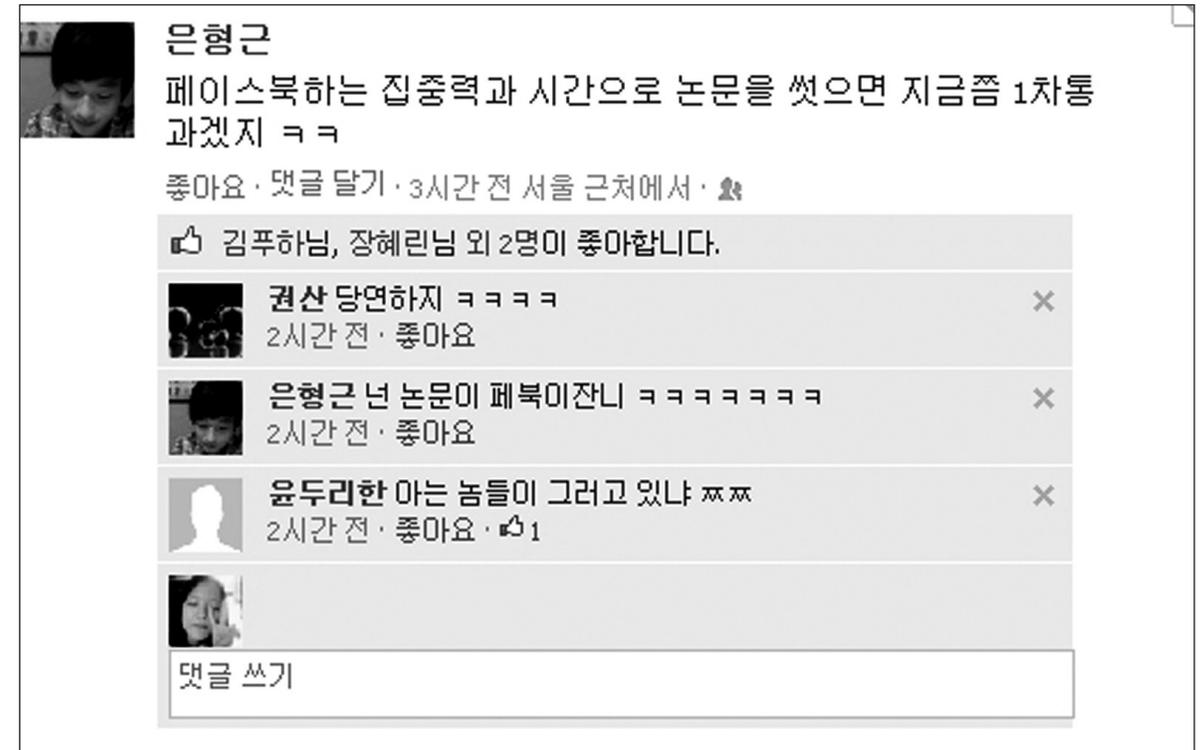
# 논문 파티? NO! 파티가 아닌 축제가 되길 바라는 이유

김예림 기자(2학년)

논문 파티는 3학년들이 논문 발표를 끝내고 난 후 고생했다는 의미에서 2학년들이 열어 주는 작은 행사이다. 논문 파티는 학교 전통으로 현재까지 전해져 내려왔고, 그러한 이유로 공식 행사는 아니지만 매년 진행되어 왔다. 3학년들의 논문이 한창 불타 오르고 있을 즈음, 2학년들 역시 조심스럽게 논문 파티를 준비하는데, 춤이나 노래 등 자기 자랑을 하기도 하고, 모두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준비하기도 한다. 또 치킨이나 피자처럼 학교 안에서는 맛보기 힘든 맛있는 음식들을 사서 나눠 먹기도 하면서 3학년의 논문 발표를 축하해 준다.

논문 파티는 이처럼 좋은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좋은 취지의 행사라고 해서 모두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대하진 않는다. 일단 논문 파티를 준비하는 2학년 사이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의견 충돌이 일어난다. 춤을 추고 싶지 않은 사람, 파티 음식을 위해 자신의 돈을 내기 원하지 않는 사람, 논문 파티를 준비해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또한, 3학년의 입장에서 기분 좋게 파티를 받고 싶은데 억지로 파티를 준비하며 짜증내는 사람을 보면 기분이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다.

실제로 논문 파티를 받았을 때의 기분을 설문을 통해 물어 보니, 그냥 전통이라서 하는 것 같다 혹은 준비하며 싸우는 거 보기 싫다 또는 억지로 할 거면 하지 않는 것이 낫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논문 파티 설문에 참가한 전교생 중 논문 파티에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47.12%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는데, 이들에게 논문 파티의 문제점을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춤, 노래, 기타 자기 자랑 등)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논문 파티 준비 중 의견 충돌과 짜증을 내는 일 역시 이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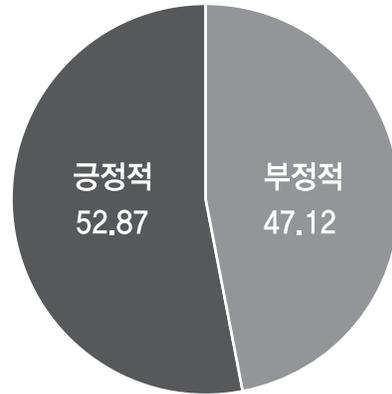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온 논문 파티의 문제점으로는 '논문 파티 준비가 강압적이다. 학교 공식 행사도 아닌데 나의 시간을 빼앗긴다.' 등이 있었다. 논문 파티를 받아 보았던 고학년에서도 논문 파티 준비가 강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후배들이 파티해 주는 대로 받으면 되지 너무 노골적으로 파티를 원한다.', '논문 파티가 좋기는 하지만 3학년의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논문 파티 준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무조건 3학년이 최고라는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다.

이렇게 논문 파티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학생들과는 반대로 52.87%는 논문 파티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그 이유에는 논문 발표를 축하하는 의미로 잘 진행된다,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다, 학교의 전통처럼 내려와서 좋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다. 또 논문 파티를 받았을 때 위의 이유처럼 안 좋은 점도 있지만 후배들이 열심히 해주어서 고맙다, 기분이 좋았다는 의견과 논문을 쓰며 생긴 스트레스가 모두 풀리고 활기분해져서 좋았다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았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견을 보인 사람들도 논문 파티의 문제점에 대해 답했는데, 이것을 보면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문제점에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논문 파티가 좋긴 하지만, 분명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논문 파티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논문 파티가 학교 공식행사도 아닌데 다른 학년의 눈치를 보며 억지로 준비해야 하고 그러면서 서로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짜증내는 일도 생기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논문 파티를 받는 3학년의 기분도 언짢아지게 된다.



# 논문이 학교에 기여한 것들



논문파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나는 논문 파티에 대한 학교의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작년에 논문 파티 엄청 재미있게 잘 해 줬는데 재네는 제대로 안 해.' 하면서 눈치를 주며 강압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이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부딪히게 되기 때문이다. 또 논문 파티가 학교 전통이라서 꼭 해야 하는 귀찮은 일이라는 인식보다 너무 거창하지 않더라도 진심을 담아서 파티를 해주자는 인식이 생기면 좋겠다.

학생들 역시 앞으로 어떻게 논문 파티가 진행되길 바라는지에 대한 의견을 많이 이야기해 주었다. 전교생이 논문 파티를 열어 주자, 기숙사 방별로 축하해 주자, 논문 파티 비용을 학교에서 지원해 주자, 논문 파티를 공식 일정으로 만들자 등의 의견이 있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의견을 시도해 본다면 점차 문제를 고쳐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논문 파티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마음인 것 같다. 누가 어떻게 해주든지 중요한 건 논문을 쓰느라 고생한 3학년들에게 논문이 끝난 것을 축하해 주자는 '논문 파티의 취지' 이니까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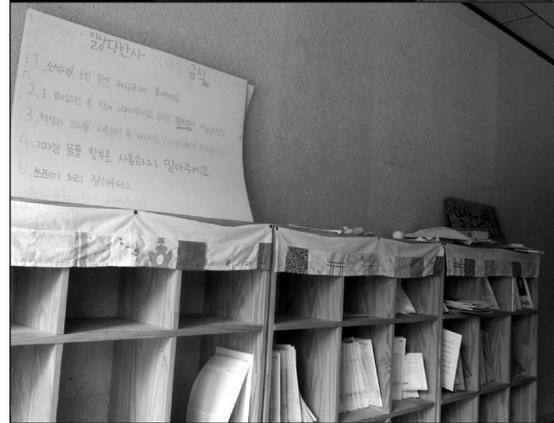
앞으로 논문 파티를 할 때는 2학년이 주최한 논문 파티에 전교생이 참가해 다 함께 게임을 하고 노는 축제로 발전시키면 어떨까? 나는 논문 파티가 학교의 전통으로 또는 축제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학교에서 무엇을 하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그것을 없애기보다는 문제점을 고쳐서 좀 더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드니까 말이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전교생이 "아~ 빨리 논문 파티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아니, 어쩌면 논문 파티의 이름도 논문 축제로 바뀔지도!!! 🍷



03 서한솔 - 생태건축(부제: 내가 생각하는 대안적인 건축)



08 신지성 - 시골집 벽화 그리기



09 김혜린 - 천 리사이클 하기



08 김겨레 - 내 손으로 가구 만들기



08 김태원 - 교사 휴게실 만들기

09 김진규 - 공간의 변화 리모델링(부제: 리모델링으로 바뀌는 '테이블 위의 전쟁')

특집 2: 가을 축제  
'지구종말대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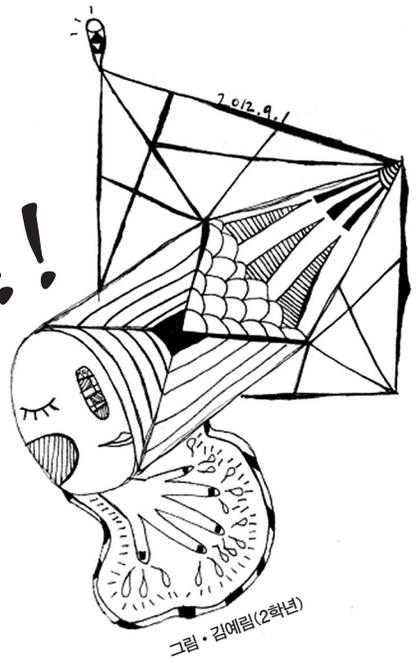


그림 · 김예림(2학년)



06 김혜민 - 간디 홈페이지 만들기

씨디디디 - 지구종말을 알리는 사이렌이 울리고  
죽기전에 후회없이 놀 우리가 댄다!! 지구종말대축제!!!  
간디인들이여!! 신나게 놀 준비가 됐는가, 그럼 준비완료 자 출발



그림 · 김민정(2학년)

# 지금 느낌이 어때

손채은 기자(2학년)

어진아!! 지금 느낌이 어때?!!

많이 들든 것 같아!  
첫 가을축제라서 그런가? 어쨌든  
굉장히 좋아!!!



1학년 우어신준

클근클근~ 지금 느낌이 어때?

진짜 먹을 것이 너무 많아ㅠㅠ 행복해~



2학년 송권근

성민오빠~ 지금 느낌이 어때?

나?? ㅠㅠ  
지금 논문쓰러가야되ㅠㅠ  
안녕~



3학년 양성민

행이 해!!

그렇게 3학년들은 지구종말이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뽀이라는  
최대난관을 헤치기 위해 전산실로 사라져 버렸다. 그럼 계속해  
서 더 많은 간디인을 만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햇님언니!! 지금 느낌이 어때?

앗!! 이때 5학년들이 준비한 '외계인 침략' 이벤트가 진행됐고  
5학년 외계인 vs 간디인의 대결이 시작되었다. 햇님언니도 그 대결에  
눈이 팔려버리고...

좋아... 하하하하하  
히히히히히



5학년 최햇님양

송헌오빠!! 지금 느낌이 어때?

힘들어!! 내가 한마디만  
해줄까? 축제 때 음식받지 마.



5학년 이송현

한창 가을축제 음식부스에 복제대는  
간디인들 때문에 열심히 음식을 만드는 송헌오빠의 모습이었다.

소영쌤~ 쌤 지금 느낌이 어떠세요

현재 3학년 부담임으로서 3학년들과 함께 논문투쟁 중인 소영쌤은  
오랜만에 낮빛이 좋아보였다.

# 이공일이년 일공월 일삼일 휴요일

손채은 기자(2학년)

2012년 10월 12일 금요일

간디인들이 바쁘게 움직였다. 생산 동아리들은 축제 때 판매할 물품들을 정신없이 만들었다. 5학년들은 노란 박스들을 옮기고 칠제물들을 옮기며 무대를 완성시켜 가고, 축제 때 판매할 음식들을 준비하느라, 결국엔 묵학(밤 7시~9시)이 끝날 때까지도 올라오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바로 내일이 10월 13일, '지구 종말 대축제'의 날이기 때문이다.

2012년 10월 13일 토요일

〈축제 준비〉

오늘은 평소 주말과는 달랐다. 바로 축제가 있는 날이기에!!! 나 역시도 바쁘게 움직였다.

5학년들이 영화 <2012(이공일이)>에서 예고한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며 후회 없이 놀기 위해 기획한 축제다. 난 이번으로 두 번째 맞는 가을 축제가긴 한데, 작년 가을 축제와는 사뭇 느낌이 달랐다.

난 생산 동아리 '카페인'의 동아리원으로서 바쁘게 우리 동아리 부스를 준비했다. 그 밖에도 생산 동아리 '너썸나썸', '빵아저씨'에서 썸과 빵을 나열하며 준비했고, 봉사 동아리 '어깨동무'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부엉이를 팔 준비를 했다.

〈오후 2시~5시 30분〉

5학년들은 그저계부터 준비한 회오리감자, 달고나, 스파게티, 크로켓, 닭꼬치 등등을 팔았는데 벌떼처럼 몰려드는 간디인들에 의해 정신이 없어 보였다. 아직 축제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간디인들이 바글바글 몰려, 난 내심 나중에 내가 사 먹을 것이 다 팔릴까 봐 걱정이 되었다.

슬슬 학부모도 몰려들고 차들이 운동장 한쪽으로 들어오며 운동장이 꽉 차기 시작했다. 때마침 5학년들이 준비한 '외계인 침략' 이벤트를 했다. 이것은 간단히 설명하면, 사회자 한 명이 각 종목을 외치면 그 종



나? 지금 좋지~ 먹을 것도 많고  
3학년들 논문 안봐서 좋고~ 하하



3학년부담임 변소영쌤

아주머니~ 지금 어떠세요?

때마침 2학년 부스를 진행하교 계시는 2학년 김민정양의 어머니가 보여서 냉큼 달려갔다.

신나고 즐겁고 좋은데  
이번 축제엔 사람이 적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아쉬워네~



1학년김민정학부모

지구종말대축제가 끝나고 이 축제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5학년 박종은 양을 만났었다.

축제를 끝낸 소감은??

공허하지..  
내가 자주 공연을 기획해서 열곤  
하잖아. 근데 그 때마다 끝나고 드는 건  
공허하단 느낌이 들어 아무래도 내가 몰두  
했던 것이 끝난 게니깐  
그런거 같아



5학년 박종은양

목에 자신 있는 간디인이 올라와 5학년 1명과 겨루는 게임이다. 게임에서 이기면 상품을 받거나 여러 가지 혜택이 있는 이벤트였다. 종목은 ‘팔씨름’, ‘애교 배틀’, ‘4인조 막춤 대결’ 순으로 했는데, 그때마다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여러 부스를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중 500원을 내서 미리 숫자를 정해 놓은 뒤 숫자가 적혀 있는 쪽지를 뽑아 그 숫자가 걸리면 추억의 간식(차카니, 쫄쫄이, 피돌이 등) 혹은 손난로나 탕탕볼 같은 걸 얻을 수 있는 부스가 있었다. 나도 한 번 해 봤었는데 차카니랑 손난로를 얻었다.



그 밖에도 2학년 학부모 부스, 간디는 사랑을 타고, 농산물 부스, 1학년 수익사업 부스, 간디 티 부스, 비누 공장 부스 등이 있었다. 이 중 ‘간디는 사랑을 타고’ 부스는 평소 자신이 좋아하던 사람의 이니셜을 써서 간접적으로 고백을 하는 부스였는데, 대부분 자신의 친구들의 이름이나 선생님들 성함을 써서 진행되긴 하였지만, 그래도 꽤 훈훈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또 간디 티 부스는 이번 5학년 창업 프로젝트에서 한 ‘간디디자인’에서 새로 제작한 간디 티였는데, 학부모와 간디인들의 관심을 받았고 나도 뒤늦게 가긴 했지만 그래도 예쁜 간디 티를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밤 공연 6시~약 9시〉

드디어 해가 조금씩 기울어져서 밤이 되었고, 이윽고 공연이 시작되었다. 가을이긴 해도 밤이 되자 많이 쌀쌀하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는데, 다행히도 오전에 얻었던 손난로가 있어서 한결 따뜻하게 즐길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

‘애국자’ 밴드의 공연을 시작으로 첫 무대가 열렸다. 난 오전에 돌아다니면서 보물찾기를 통해 얻은 ‘밤공연 VIP 자리 쿠폰’ 덕에 맨 앞자리에서 볼 수 있었다. 첫 공연에 이어 춤 동아리 ‘미지정’의 짧지만 강렬했던 춤을 보았는데, 초반에 웃는 듯한 느낌의 사운드가 들려서 나름 흥미진진한 공연이었다. ‘미지정’ 공

연이 끝나자 5학년 은솔 언니의 춤이 이어졌다.

그렇게 각 동아리, 개인별 공연이 있던 후 5학년들의 춤이 시작되었다. 5학년 남자 7명이 인피니트의 ‘추격자’를 추었는데, 뭔가 오글거리면서도 평소 춤을 잘 추지 않았던 오빠들의 새로운 모습도 볼 수 있었다. 내 친구 하린이(2학년)는 인피니트의 팬이어서 차마 못 보겠다고 고개를 떨군 채 결눈질하며 공연을 보았고, 공연이 마무리되자 그제야 고개를 똑바로 들었다. 이어 2명의 5학년 남자가 나와 동방신기의 ‘왜’를 추었는데, 뭔가 신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멋있기도 해서 재밌게 볼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5학년 언니들의 춤이 이어졌는데, 처음엔 여자 5명이 Evol(이블)의 ‘우린 좀 달라’를 매혹적이면서도 파격적으로 추었다. 다음으로는 4명의 5학년 언니들이 몸매 차림으로 올라왔다. 그리고 노래가 나왔는데 ‘Daft Punk’의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였다. 인상적인 몸짓에 노래까지 귓속에 쑥쑥 들어와서 더욱더 재미있었고, 그렇게 5학년들의 춤 공연은 마무리되었다.



어느새 마지막 공연 순서가 되었다. 밴드 동아리 ‘지락’과 풍물 동아리 ‘솔피바람’이 합세하여 ‘솔피바람’이 만들어 낸 공연이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과 마야의 ‘진달래꽃’을 했는데 잠시도 한눈을 팔 수 없었던 공연이었다. ‘강남 스타일’을 할 때에는 범부춤 팀이 나와서 범부춤과 함께 ‘강남 스타일’을 춰서, 앞서 구경하고 있던 간디인들도 함께 나가 춤을 추고 신나게 즐겼다. 믹스로 ‘강남 스타일’ 다음에 ‘진달래꽃’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으로 이어졌고, 이 노래를 알고 있는 간디인들과 학부모님들도 함께 부르며 즐거운 공연이

마무리되었다. 마지막엔 지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앙코르를 받아 함께 즐기며 ‘지구 종말 대축제’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구 종말 대축제가 끝나고...〉

밤 공연이 짧아서 아쉬운 간디인들도 몇몇 있었지만, 짧은 만큼 굶었다고 만족스러워 했던 간디인들도 더러 있었다. 아무튼 ‘다 같이 즐기고 함께 웃을 수 있었던 그런 가을의 씬표가 되지 않았을까?’ 다음의 가을 축제는 어떨지 기대해 본다. 🍁



# 뜨거운 감자! 가을 축제 폐지론

## - 찬성과 반대, 그 갈등 속에서

최형규 기자(2학년)

항상 10월엔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가을 축제는 2009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처음 생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겨울에 축제를 만들어 보자' 했는데, 겨울은 너무 춥고, 너무 추워서 실내에서 하려니 실내는 너무 좁고 '날 좋은 가을에 전교생들이 다 같이 놀아 보자' 해서 가을 축제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가을축제는 재밌는 체험 부스들과 맛있는 먹을거리들, 다양한 공연들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올 10월에도 가을 축제는 많은 사람들의 웃음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근데 요즘 이렇게 즐겁고 재밌는 축제를 없애자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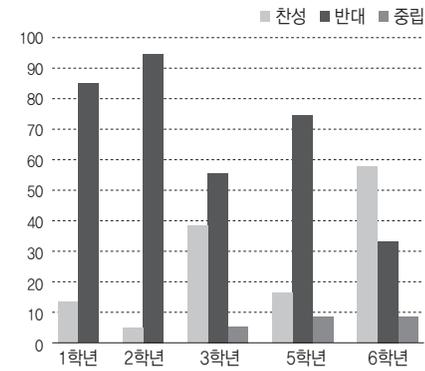
첫째, 축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2학기 때만 해도 논문 발표회, 필리핀 발표회, 졸업식, 기말 축제, 가을 축제, 인턴십 발표회 등과 같이 학교 공식 일정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학교 일정을 준비하고 하다 보니 학생들과 교사들 모두 지친다는 것입니다.

둘째, 고등부 생활의 안정화입니다. 4학년들은 내년

부터 필리핀 해외 이동 체험 학습을 1학기 때 갑니다. 갔다 오고 나서 2학기가 시작되는데, 2학기 때 이렇게 많은 학교 공식 일정들과 축제들을 소화하면 지칩니다. 그리고 5학년은 인턴십 준비, 2학기 가을 축제 기획, 준비 등을 하며 학교에 여유롭게 있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6학년의 경우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6학년들은 1학기 때 인턴십을 하고 2학기 때 돌아와서 많은 일정들과 축제를 하니 학교 생활이 여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6학년은 졸업식까지 해야 하는데 말이죠.

셋째, 줄일 만한 행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2학기 때 행사들을 쭉 보면 논문 발표회, 필리핀 발표회, 졸업식, 기말 축제, 가을 축제, 인턴십 발표회 등과 같은 학교 공식 일정과 축제들이 있습니다. 논문 발표회, 필리핀 발표회, 졸업식, 기말 축제, 인턴십 발표회 같은 행사들은 학교 공식 일정이고, 가을 축제는 성격 자체가 노는 축제라서 가을 축제를 없애자는 의견이 나온 것입니다.

가을 축제 폐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가을 축제를 없애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전교생 83명에게 설문을 돌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전교생의 24%가 찬성, 72.2%가 반대, 3.6%가 중립이었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각 학년들의 반응입니다.

6학년이 가장 찬성이 많았고, 2학년이 가장 반대가 많았습니다. 찬성을 한 사람들의 의견은 '개인 시간을 뺏긴다, 사생활 침해다, 축제가 너무 많다, 3학년들 논문 쓰는 기간과 겹친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반대를 한 사람들의 의견은 '학생들이 기획하는 것이니까 꼭 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기획하는 축제니까 의미 있다, 재밌다, 축제를 즐기고 싶다, 간디학교 생활의 낙이다, 가장 큰 행사를 없애는 건 말이 안 된다' 등이었습니다.

이런 가을 축제 폐지에 대한 찬성과 반대 속에서 저는 반대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축제를 기획, 주최하는 것은 굉장

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축제가 없어져 버린다면 외부인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실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을 축제가 없어진다면 외부인이나 학부모님들이 학교에 오실 수 있는 날은 대동제나 기말 축제, 방학식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을 축제가 없어진다면 가을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만끽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매년 학생들이 준비하던 축제가 없어지는 것은 학교의 전통이 깨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차라리 규모가 작은 교과 발표회를 없애고 가을 축제에 좀 더 몰입하여 더욱더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 언제나 든든한 ‘백’, 홍수연 후원인

임소현 기자(5학년)

이번에 만난 후원인은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시고, 안산 의료 생협에서도 일하시는 홍수연 선생님입니다. 홍수연 선생님은 성미산학교에 8학년(중 2), 3학년(초 3)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님이기도 한데요. 마침 인터뷰 날 성미산학교 운동회가 열려 운동회 구경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하는 운동회는 우리 학교 대동제와 느낌이 사뭇 달랐습니다. 한쪽에 한강이 흐르고 반대편으론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에서 도시형 대안학교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또 초·중·고 부모님들이 모두 참가해서 학교 행사보다 마을이나 가족 운동회 같은 느낌이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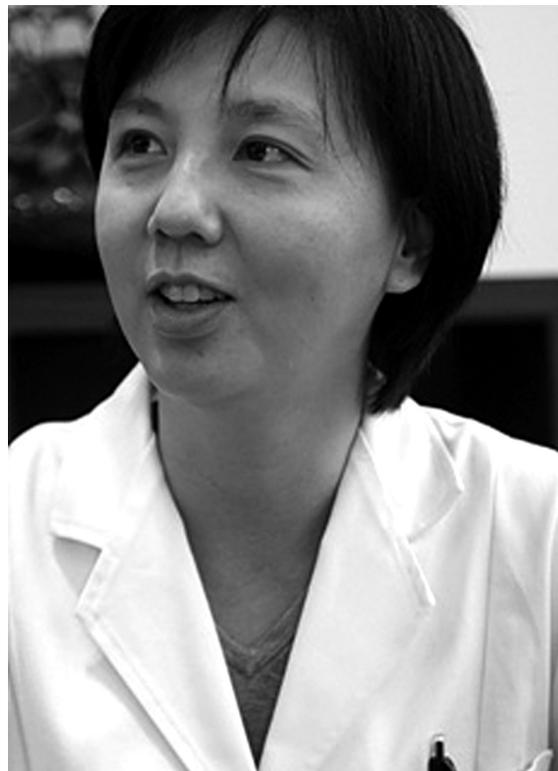
즐거운 운동회가 끝난 뒤, 마을 카페인 ‘작은나무’에서 미숫가루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홍수연 선생님과 인터뷰하였습니다.

Q. 제천간디학교와의 인연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A. 아마 2000년부터 시작되었을 거예요. 대안교육 한 마당과 비슷한 자리를 기획하면서 양 썸을 만나게 되었죠. 그때 당시 간디학교는 산청에서 제천으로 이전 하던 때라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좋은 대안학교를 만들어 보자고 결의했었죠.

Q. 선생님께서 일하시는 의료 생협은 어떤 곳인가요?

A. 의료 생협은 지역사회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해지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건강한 생활 습관, 관계를 만들고 자신을 평생 돌보아 줄 수 있는 주치의의 만나죠. 또 여러 건강 소모임을 하고 있어요. 의료 기관의 주인이 조합이나 조합원이예요.



Q.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시면서 안산으로까지 진료를 하러 가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A. 우리나라에 의료 생협이 15개가 있어요. 의료 생협은 처음에 안성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러다 다른 지역에도 하나 둘씩 의료 생협이 생겨나고, 안산 의료 생협이 생긴 지는 3년 정도 됐어요. 제가 안성에서 살면서 의료 생협 활동을 했었고 경험이 있으니까 돕는 거죠. 서울에도 물론 의료 생협이 있답니다.

앗, 갑자기 ‘작은나무’ 입구에 후광이 비쳤다. TV 드라마 〈시크릿가든〉에서 길리임 아빠로 온 국민을 눈물바다에 빠뜨린 배우 정인기님께서 등장하셨다. 홍수연 선생님께서 사인이라도 받아야 하지 않겠냐며 잠시 인터뷰를 멈추고 짹 짹 팬 사인회를 진행하였다.

(팬 사인회를 마치고)

Q. 후원인으로서 바라본 제천간디학교는 어떤 모습인가요?

A. 5년 전쯤 마지막으로 방문했어요. 초창기 때는 자주 갔는데 최근에는 못 갔어요. 소식지로만 보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그런데 대안학교 한마당 같은 곳에서 보면 자리도 잡히고 탄탄해진 것 같아요. 10년 전 간디학교는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학교 안의 재미는 믿고 있고요. 졸업 이후 배운 대로 잘 살고 있는지가 궁금하네요. 또 자리 잡고 10년이 지났으니 지역 사회와의 관계도 궁금하고요.

Q. 성미산학교 학무보님이신데, 제천간디학교를 후원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A. 제천간디학교를 먼저 알았어요. 그리고 성미산학교를 알게 됐지요. 우리 아이를 간디학교에 보냈을지

도 몰라요. 첫 아이가 초등학교 때 시골 분교를 다니고 외국에 잠깐 있었는데 중학교를 보내야 할 시기가 오자, 근처에 있는 성미산학교에 보내게 된 거죠.

Q. 성미산학교와 제천간디학교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질적인 공통점이 있고 양적인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공통점이라면 비인가 대안학교라는 것? 지금 사회가 추구하지 않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거죠. 성미산학교의 철학은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자’예요. 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이죠. 아무래도 성미산학교는 도시형 대안학교이다 보니 도시 환경에 포획되어 있어요. 성미산학교는 초등과정에서 중·고등이 생긴 케이스라 중·고등이 불안하고, 제천간디학교는 초등과정 없으니 중·고등학교가 탄탄하죠.

Q. 사회에서 만난 대안학교 출신 학생들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A.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하는 사회는 벽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학교 친구들은 그 벽 안에서 자라는 거고 대안학교 학생들은 벽 밖에서 자라는 거죠. 제가 원하는 바는 그 벽을 깨부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첫째 기죽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뭐 다른 것들은 부모님들이 다 말씀하실 테니 저는 여기까지!(웃음)

Q.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협동 조합이 되었으면 하시나요?

A. 우리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가 한두 세대 안에 저절로 없어지거나 망할 일은 없을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본주의를 극복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협동 사회적 경제를 구



# 교장 선생님이 바뀌었습니다!!!

김민석 기자(1학년)

제천간디 이전 10주년을 맞으면서 제천간디학교의 교장 선생님도 바뀌셨습니다. 지난 8월 25일에 이임식과 취임식을 동시에 하면서 양희창 선생님(전 교장 선생님, 이하 양 쌤)이 12년(산청 2년, 제천 10년) 동안의 교장 생활을 마치셨고, 손진근 선생님(현 교장 선생님, 이하 손 쌤)이 제천간디학교의 두 번째 교장 선생님이 되셨지요. 그래서 이번 《간디IN》에서는 양 쌤과 손 쌤 두 분을 함께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얘기들을 나누었는지 한 번 들어 볼까요?

현하는 하는 방식으로 조합이나 대안이 있는 거죠. 하나의 삶의 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유한한 삶인 이상, 살고 있는 당대에 최선을 다해 더불어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Q. 끝인 줄 알았지만! 깜짝 퀴즈를 내도록 하셨습니다. 제천간디학교를 오래 지켜봐 주신 만큼 얼마나 알고 계신지 돌발 퀴즈 들어갑니다.

질문 1. 제천간디학교는 올해로 몇 주년이 되었을까요??  
음, 제가 숫자에 약해요...^^(곰곰이 생각하시다가)  
10년! 10년 된 것 같은데...  
(정답: 10주년)

질문 2. 소식지를 만드는 소모임 이름은 무엇일까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다섯 글자 맞죠?  
(정답: 일상다반사)  
아, 맞아! 나이를 먹으면 금방 들은 건 기억이 잘 안 나고 옛날 것만 기억이 나요.(웃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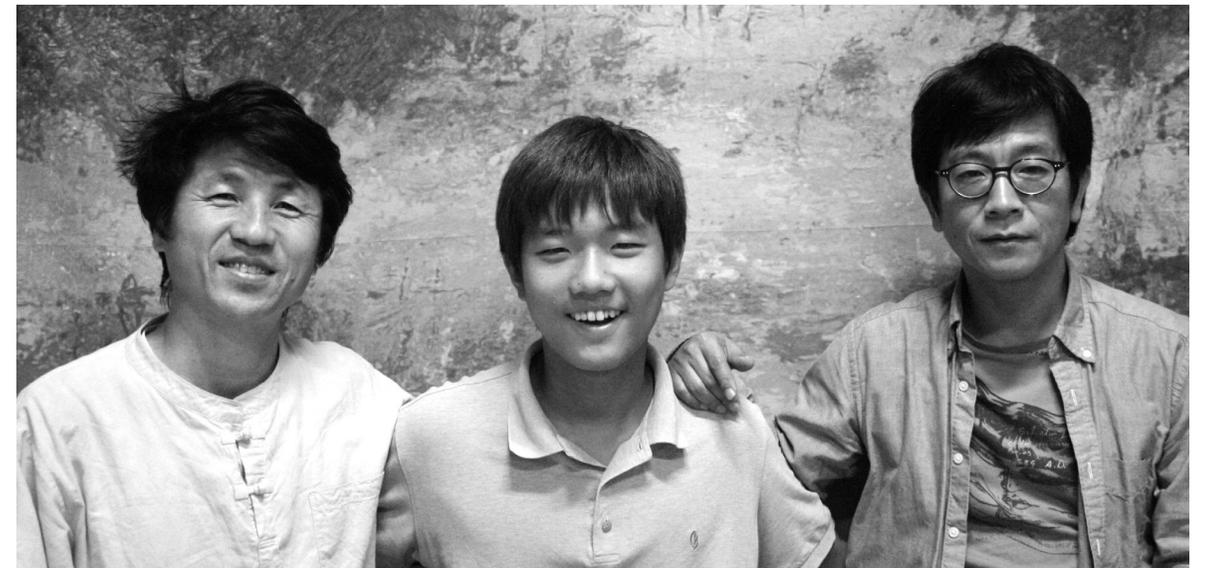
질문 3. 교장 선생님 성함은?

아까 손 쌤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답: 손진근 쌤. 차 타고 오는 동안 스포일러했다...)

질문 4. 고1, 4학년이 되면 해외 체험학습을 갑니다. 어느 나라로 갈까요?  
필리핀!  
(정답: 필리핀)

질문 5. 《간디IN》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기사는 무엇인가요?  
지난 호의 '동물을 찾습니다'가 재밌었어요.  
(내가 썼는데... 히히 ^^)

이번 인터뷰를 통해 좋은 분과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또, 성미산 마을, 의료 생협 등 많은 것에 대한 것을 잘 알게 된 것과 더불어 개인적으로도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치과 진료와 집 이사, 학교 운동회 등등 바쁘신 와중에도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신 홍수연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Q. 이 · 취임식을 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양 쌤: 나 같은 경우엔 학교에 12년 이상 있었으니까 '학교를 정말 떠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 또 여러분이 준비한 이 · 취임식이 너무 멋지고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 이 · 취임식을 보는 것 같다는 느낌도 있었죠. 참 좋았어요.

손 쌤: '취임한다'라는 느낌이 약간 얼떨떨했고요. 일단 양 쌤을 아름답게 보내 드린다고 여러분들, 쌤들, 학부모님들이 여러 가지 준비를 해 주신 거 보면서 참 좋았어요. 또 취임에 들어서면서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12년 동안 양 쌤이 잘해 주셔서 조금 부담이 되기도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축하를 해 줘

서 참 행복했어요.

Q. 이·취임식을 하고 난 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신가요?

양 쌤: 나는 학교를 안 가니깐 아침에 오늘 뭐 하고 지낼지 계획을 짜야 되고, 가끔 강의를 가서 강의 준비도 하게 됐어요. '내 나이 딱 오십인데, 오십부터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날그날 나한테 주어지는 과제나 책임이 있을 텐데, 앞으로는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요즘 공부를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책도 많이 읽고, 원래 혼자 잘 못 있었는데 요즘 혼자도 잘 있고요.

손 쌤: 삶의 변화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학교에서 교장이 된다고 특별히 권위가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역할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 학교 후원 상황이 어려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의 변화가 생기는 거 같아요. 앞으로도 그런 생각의 변화들이 많이 있을 것 같구요.

Q. 이제 두 분 다 새로운 길을 가시게 되었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양 쌤: 나는 청소년에서 청년들에게 관심이 생겨서 졸업생이나 청년들이 이 시대에서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또 마을에 있는 어울림 센터가 간디 교육 센터로 이름이 바뀔 거예요. 내가 그 센터를 맡게 되었는데, 마을 중심으로 재밌게 잘살 수 있는 일을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건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이제 교사가 아니고 다시 학생이 된다는 거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앞으로 하고 싶은 걸 많이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공부를 하고 그걸 또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요.



손 쌤: 저는 교장이 됐으니 학교 경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지요. 개인적으로 학교가 학생과 교사가 모두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Q. 양 쌤은 교장직을 그만두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양 쌤: 일단 너무 오래 했어요. 산청까지 합해서 교장직을 12년 동안 했으니까, 오래 하게 되면 생기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더 많은 거 같아요. 학교는 계속 순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내 역할은 이제 다 한 거 같아요. 초창기 교장 역할은 다 했고, 다음은 손 쌤 중심으로 학교를 좀 더 발전시키고 안정시키면 될 거 같아요.

Q. 손 쌤은 교장직을 맡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손 쌤: 우리 학교 교장이 국회의원처럼 공약을 내세워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더라고요. 교사 추천을 받아서 제가 됐는데, 처음에 추천을 받았을 때 많이 두려웠어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부담감도 많이 들었고, 하지만 누군가 꼭 해야 될 일이라면 좀 편안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또 다른 배움의 시작이다, 배움의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힘차게 한 발 한 발 내디더 보자.'라는 생각으로 하게 됐어요.

Q. 손 쌤과 양 쌤은 어떤 방식으로 학생들과 소통을 하시나요?

양 쌤: 나는 수업을 좀 했어요. 아이들과 직접 만나서 통로가 없으면 교장도 아이들이 뭘 원하는지 학교를 어떻게 움직일 건지 잘 모를 거 같아요. 주로 난 철학 수업으로 아이들을 만났고, 그 밖에도 고등학생이 될 수록 개인적으로 상담을 많이 한다든지 그래서 '저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는 걸 원할까?', '앞으로 어떻게 사는 데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 같아요.

손 쌤: 양 쌤이랑 비슷할 거 같아요. 일단은 수업, 동아리 그리고 내가 운동을 좋아하니깐 축구, 그 밖에도 생활 곳곳에서 학생들과 많이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양 쌤이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이 개인 상담도 하러 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것 같아요.

Q. 굳이 제천 이전 10주년 때 교장직을 바꾼 이유가 있나요?

양 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학교가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전기를 만드는데 교장만 바뀌는 차원이 아니라 학교 모습 전체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학교 10주년 때 교장을 바꾸는 게 바람직하다고 느꼈

어요. 사람을 바꾸는 것뿐만 아니고 10년 만에 학교 체제가 바뀐다는 생각으로. 그래서 저는 10주년 때 교장을 바꾸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손 쌤: 동의합니다. (다 같이 웃음)

Q. 양 쌤은 교장직을 해 보셨으니깐 처음이신 손 쌤에게 해 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

양 쌤: 평소에 같이 지내고 동료 교사였으니깐 손 쌤이 교장 선생님 되신다고 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어요. 조언해 드릴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장을 하면 철학을 지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 같아요. 아이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철학이 무엇이고 학교가 철학대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도 봐야 하고요. 두 번째는 학교 전반적인 걸 다 봐야 하니깐, 예를 들어 손 쌤이 여태까지 담임 중심으로 살아 오셨다면 교장은 본의 아니게 전체를 다 봐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이걸 저도 처음에 교장을 맡았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다 안 보여요. 그래서 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학부모도 봐야 되고 학교 전체 행사도 봐야 되고, 또 경영도 봐야 되고 철학도 봐야 되고 마을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훈련을 해야 돼요. 늘 이렇게 적어야 해요. 아니면 또 빠뜨려요. 어떤 때 아이들 수업 준비를 하다 보면 중요한 행사도 빠먹는 경우가 생기니까,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면 좋겠어요.

Q. 손 쌤도 새로운 길을 가시는 양 쌤에게 한 말씀해주세요.

손 쌤: 일단은 마을 센터가 잘 되면 학교도 더불어 잘 되기 때문에 마을 센터가 잘 꾸려졌으면 좋겠고요. 요즘 제가 많이 하는 말인데, 양 쌤이 걷는 길에서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 무엇이 무엇이 재밌을까 ♪

조하한 기자(3학년)

아침 먹고 수업하고, 점심 먹고 수업하고, 축구하다가도 수업하고, 수다를 떨다가도 수업하고... 간디학교에는 참 수업이 많습니다. 도대체 수업을 얼마나 들길래 이렇게 바쁠까요? 요즘 선택 수업 중에서 재밌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수업들이 있는지 한 번 찾아가 볼까요? (사진에서 수업에 참여한 조하한 기자의 모습을 찾아보세요^^)



Q. 손 쌤이 쌤들과 학생들에게 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손 쌤: 아까도 그랬지만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골짜기까지 와서 문화적 혜택도 못 누리고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아무리 좁은 공간 이어도 세계를 볼 수 있는 힘은 있으니까. 저는 많이 행복해요. 교장이라는 새로운 직분이 생기니까 또 다른 배움의 길을 찾은 거 같아요. 그리고 요즘 양 쌤 수업을 물려받아서 철학 수업을 하는데 수업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재밌는 일이 연속이면 행복이 더 커지거든요. 선생님이나 학생들도 '내가 뭘 하면 행복할 수 있을 것인가?' 곰곰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 그걸 하나하나 해 나가면 좋겠어요. 행복은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가면 행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꿈, 간디의 이상향이 있으시다면?

양 쌤: 나는 간디학교에서 우리 나름의 성공한 사람,

내가 말하는 성공은 세상이 말하는 돈이나 출세가 아니고, 마음이 행복한 사람이라든지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즐겁게 일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선 나도 앞으로 많이 신경도 쓰고 도움이 되고 싶어요.

손 쌤: 저는 졸업생이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많이 와서 우리 학교 선생님도 되고, 마을 주민도 되어서 농사도 짓고, 마을 극장도 지어서 사람들과 공연도 보고, 마을 신문사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 소식뿐만 아니라 이 시대의 소식도 실으면 좋겠고, 출판사도 만들어서 책도 찍어 내면 좋겠어요. 이곳이 돈은 적게 벌더라도 따뜻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새로운 대안문화가 생기는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이어서 서툰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양 쌤과 손 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새로운 길 가시는 양 쌤과 손 쌤을 응원합니다! ♡

## 【월요일】

한 주를 여는 시간이 끝나고 3, 4교시에 진행되는 '지식 채널로 세상보기'라는 수업에 들어갔다. 제목에서는 사뭇 진지한 느낌이 들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가벼운 분위기로 수업이 진행된다. 사회 수업치고 줄리지 않은 수업이 없다던데, 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손진근 쌤을 만나 보았다.

Q. '지식 채널로 세상보기'는 어떤 수업인가요?

A. 감동적으로 펼쳐지는 5분 동안의 지식 채널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정치, 경제, 지리, 문화라는 큰 주제를 두고 학기마다 돌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세상을 보는 공부를 하는 수업입니다.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누구나 들으면 좋겠죠. (웃음) 세상과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은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심을 먹은 지 꽤 지났는데 식당에서 소리가 들린다. '손으로 말해요'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1학년울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수업에서는 수화를 배운다. 도란도란 모여서 수화를 배우는데 따라 해 보니 제법 재미있었다. 수업을 진행하시는 장희숙 쌤을 만나 보았다.



Q. '손으로 말해요'는 어떤 수업인가요?

A. 손으로 말하는 수업이에요. (웃음) 청각 장애인들이 쓰는 언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책으로 배우는 문법 수화와 실제로 소통하는 농식 수화를 배우고, 기본적인 청각 장애인들의 이해와 장애인의 대한 공부를 같이 하고 있어요.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특히 장애에 대한 편견이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심화반이 아주 오랜

만에 만들어졌는데, 조금 더 꾸준히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화요일】

운동장 한복판에 원을 만들어 몸을 풀고는 러닝을 한다. 뭘 하나 했더니 농구 수업이다. 점심을 먹고 5교시에 진행되는 농구 수업은 활기가 넘친다. 왼손으로 튀기고, 오른손으로 튀기고, 공을 튀기는 아이들이 참 즐거워 보인다. 수업 강사이신 만능 스포츠맨 선림교회 반경수 목사님을 만나 보았다.

Q. '농구'는 어떤 수업인가요?

A. 수업을 듣는 친구들이 농구에 흥미는 있으나 아직 어리고,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농구에 대한 기초부터 터득하고 기술적인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농구에 흥미가 많은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여학생들이 많이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학생들보다 여학생들이 운동량도 적고, 몸을 움직이는 걸 안 좋아하잖아요. 또 여학생들은 '기도 작고 약하고 느리다.'라는 편견이 있



는데, 운동을 통해서 그런 편견을 깰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바탕 공놀이를 하고 앉아 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따라가 보니 돌집에서 '하모니'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 ~ 위 위시 유어 메리 크리스마스 ~", 아직 눈도 안 오는데 캐럴이 들린다.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 같은 '하모니' 수업을 지휘하시는 송민혜 쌤을 만나 보았다.

Q. '하모니'는 어떤 수업인가요?

A. 이번 수업에서 쓰이는 '하모니'라는 말은 멜로디 속의 하모니가 아닌 공동체 속의 하모니로서 서로 호흡하고 소통하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모티브를 합창에서 가져와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다 같이 호흡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된 수업이에요.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간디인이면 아무나 들어도 되죠. (웃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학년간의 소통이라 학년별로 끌고

루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성비도 맞으면 좋구요. 또 노래를 못하는 친구들도 괜찮아요. 실력보다 함께한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같이 수업하면 좋겠죠.

【수요일】

생태화장실 옆 큰 느티나무가 웬일로 시끄럽다. 누구는 나무에 매달리고, 누구는 그 모습을 촬영하고, 무슨 수업인가 물었더니 '뮤직 비디오 만들기' 수업이란다. 나무에서 한참 동안 찍더니, 이번엔 운동장에 있는 리어카에 올라타 한참을 찍는다. 이런 천진난만한 아이들을 뒤에서 찍고 게시는 황선호 쌤을 만나 보았다.

Q. '뮤직 비디오 만들기'는 어떤 수업인가요?

A. 뮤직 비디오 수업은 음악적 감수성을 시각적으로 함께 표현해 보는 수업이에요. 우리가 흔히 느끼는 청각적인 상상력과 환상들을 시각적으로 만들어 보는 수업이죠.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대상은 전교생으로 했어요. 현재는 음악보다는 영

상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많이 듣고 있어요.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친구들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종합해서 하나의 완성된 예술품으로 만들면 멋진 거예요.

**【목요일】**

나른한 목요일 오후 작은 교실에 1학년 친구들이 도란도란 모여 수업을 하고 있다. 무슨 수업인가 하고 들여다봤더니 만화 이야기 수업이다. 아이들이 각자 그려 온 캐릭터와 이야기를 쌤과 공유하고 있다. 졸업생 학부모이기도 하신 이은홍 쌤을 만나 보았다.

Q. '만화 이야기'는 어떤 수업인가요?

A. 만화로 자기 이야기를 꾸며 보는 수업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만화로 표현해 보는 거죠. 이론에 치중되기보단 직접 그려 봅니다. 학기말엔 각자의 만화 작품을 가지고 책으로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남녀노소 불문하고 아무나 들어도 좋은 수업입니다. 만화를 좋아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자기 이야기가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들어도 됩니다.

**【금요일】**

오늘 따라 몸이 빠근하다. 어제 잠을 잘못 잔 것 같다. 목을 부여잡고 있는데 강당에서 음악 소리가 들린다. 다들 파란 매트를 하나씩 깔고 누워 있다. 이번 학기에 처음 개설되어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요가 수업이다. 요가 수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쌤을 만나 보았다.

Q. 요가 수업은 어떤 수업인가요?

A. 말 그대로 요가를 배워요. 그리고 요가와 함께 명상도 같이 합니다. 요가 명상은 긴 시간이 필요해요. 한 학기 동안은 명상과 친해지는 기간이에요. 요가 명상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결국엔 침묵 명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들이죠. 고요하고 평온한 상태에서 자

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Q.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은 수업인가요?

A. 요가 명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그 중에서도 주위가 산만하거나 집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또 스트레스가 많고 예민한 사람들이 들어도 좋은 수업입니다. 자신에게 집중을 할 수 있는 좋은 수업입니다.

지금까지 간디학교 선택 수업에 대해 알아봤다. 수업만 들었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나갔다. 시간이 겹쳐서 못 들어간 수업이 많아서 아쉽다. 내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재밌는 수업들이 정말 많다는 생각을 했다. 피곤하지만 보람찬 일주일이었다.

\*인터뷰 응해 주신 쌤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왁자지껄, 사감 쌤 방 탐방기!

김은수 기자(1학년)

우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이자 수다방인 사감 쌤 방. 모기에 물려서 가려울 때, 말 못할 고민으로 끙끙 앓고 있을 때, 할 일 없고 심심할 때 꼭 한 번은 들르는 곳이지요. 그곳에서 자라나는 귀여운 이야기꽃들과 함께 사감 쌤인 미리 쌤과 승룡 쌤을 만나 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왁자지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감 쌤 방의 문을 두드려 볼까요?

Q. 사감 쌤 방에 아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미리 쌤: 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공간이 없어 서야. 방 사람들하고만 있기보다 다양한 애들하고 함께 놀고 싶은데,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놀기에는 좁은 눈치 보이잖아. 그런 눈치 안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하고 어울릴 방법을 찾아보니까 사감 쌤 방에 들어온 거지. 여기뿐만 아니라 만광도 그렇고. 그리고 남자, 여자 기숙사가 한 건물 안에 있으니까 서로 궁금하기도 하고. 뭐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보통 만남의 장소로 활용하는 것 같아.

승룡 쌤: 애들이 성장기이기도 하고, 기숙사는 청춘남녀들이 사는 공간인데 공식적으로 편하게 만날 장소가 없잖아. 쌤방에 오면 남자애들도 있고 여자애들도 있고, 그래서 찾아오지 않나 싶어.

Q. 보통 몇 학년이 많이 와요?

미리 쌤: 1학년이 많이 오지. 다른 학년들은 이제 학교가 익숙하잖아. 친한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여기가 아니라도 갈 곳이 많아서 다른 방도 막 다니면서 아는

동생, 언니들을 만나는데, 1학년들은 친한 게 자기 학년밖에 없잖아. 그래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만나러 다니기도 눈치 보이고. 근데 여기서는 뭐라 할 사람이 없잖아. 그래서 1학년들이 자주 오는 거지. 1학기 때는 내가 다른 학년보다 1학년을 우선으로 받아. 1학년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이야. 그래서 다른 학년 애들이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서 서운해 하지. 만날 1학년들만 좋아한다고.

Q. 보통 와서 무엇을 하나요?

승룡 쌤: 다양하지. 그냥 쌤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노는 애들도 있고. 나는 나 보러 온 줄 알았는데 나 보러 온 게 아니야. 자기들끼리 놀러 왔어.(웃음) 아니면 한 두 명이 나랑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애가 와서 같이 얘기한다든지.

Q. 아이들이 쌤 방에 와서 시끄럽게 떠들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미리 쌤: 불편해. 처음엔 정말 불편했어. 왜냐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사람 많은 걸 싫어하거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내가 사감이 됐으니, 가족들도 다 네가 어떻게 사감을 하나고 그랬었지.

승룡 쌤: 당연히 그렇지. 근데 나만 생각하면 사실 그런 건 없애고 싶은데, 너희들 생각하면 봐 줘야겠다는 생각에 시간도 정해 냈어. 묵학(저녁 7~9시) 때는 혼자 있어야 되니까 묵학 때는 안 되고, 그 후에 청소 시간부터 취침 전까지 그러니까 대략 10시 반 전까지는 쌤이 허용을 해 줬어. 10시 반 이후까지 떠들면 말을 하지.

Q. 아이들이 상담하러 많이 오잖아요. 주로 어떤 고민들을 얘기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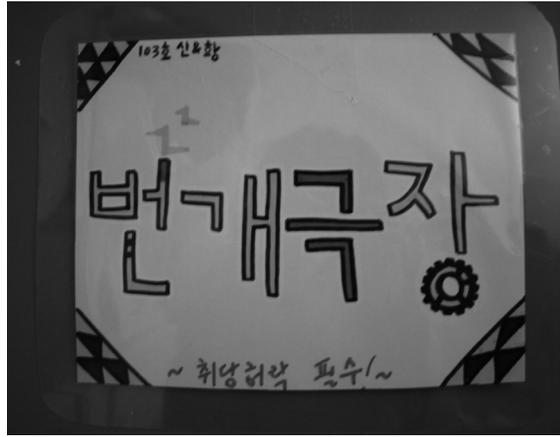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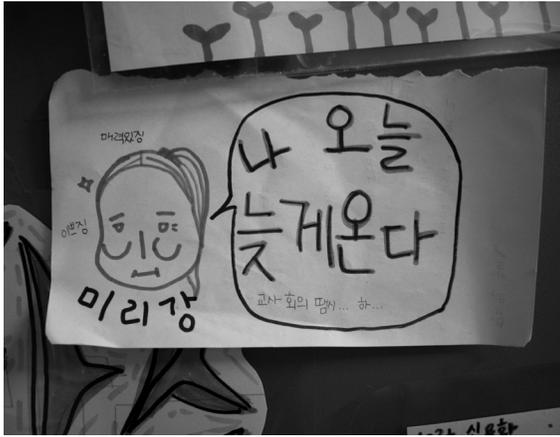
미리 쌤: 보통 선·후배, 친구 관계나 연애 상담이 많은데 간혹 고학년들은 진로 고민도 얘기해. 나는 직접 해결해 주진 않고 들어주는 거지. 그냥 털어 놓기만 해도 응어리 같은 게 풀어지기도 하잖아. 너무 안타깝지. 근데 간혹 본인이 누구와 관계를 풀고 싶거나 정말

개랑 이루어지고 싶은데 쌤이 도와주세요, 이런 경우는 내가 좀 끼어들기도 하지. 난 기본적으로는 본인끼리 해결하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 하면 나한테 부탁해도 된다고 하는 편이야.

승룡 쌤: 보통 고학년들이 상담을 많이 하는데 연애 이야기도 많고, 학교 생활 이야기도 있지. 어떤 경우에는 쌤이 일부러 부르기도 해. 좀 이야기해 봐야 할 친구가 있으면... 그때그때 이야기하는 게 달라. 주로 하는 게 연애 이야기지. 또 고학년이니까 공부 이야기도 하고.

Q. 치킨이나 밤 매점 등, 규칙을 어겼을 땐 어떻게 해결하나요?

미리 쌤: 여자 기숙사는 어차피 치킨이 금지가 아니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나한테 얘기를 하면 돼. 그래도 애들이 치킨 먹겠다고 오면 바로 돈을 주진 않고 얘기를 좀 하지. 꼭 치킨이어야 돼? 이러면서. 근데 지금까지



거절할 적은 딱히 없어. 너무 버릇 없이 말할 때 정도. 대부분은 애들이 다 잘 설명을 해. 근데 내가 살짝 다른 곳으로 유도를 하지. 치킨 말고 다른 것도 있는데, 하면서 사실 먹을거리는 많아. 귀찮아서 안 하는 거지. 예전에 어떤 방은 복숭아 한 박스 사서 배 터지게 먹고, 어떤 방은 수박 파티를 한 적도 있어.

승룡 쌤: 일단 고학년들은 별로 야단칠 것도 없고, 칠 말도 없고. 저학년들은 적발이 되면 일단 원칙적으로 야단을 치다가 쌤 방에서 자게 하지. 경중에 따라서 좀 심하게 했으면 1주일, 약하면 하루 내지 3일. 그리고 약간의 고문을 하지. 간지럼 태우기 같은 것들.

Q.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미리 쌤: 일단 내가 예민한 편이라 한 사람이 말해도 큰데 여러 사람이 말하니까 너무 시끄러워. 서로 큰 소리로 말하고 싶진 않은데, 이쪽에서 큰 소리로 말하면 자기 말이 안 들릴 것 같으니까 애도 높아지고 애가 높아지면 옆에 있는 애도 높아지고 좀 그런 것 같아. 내 방을 쓰는 건 좋은데, 그래도 한 번쯤은 내 방이라는 걸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승룡 쌤: 처음 학교 들어왔을 때의 마음가짐이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 내 생각에 대안학교, 특히 간디학교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만의 삶을 이끌어 나가서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결심으로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 봤자 자기 손해야. 속도라든지 살아가는 모습이라든지. 막상 학교를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흥분되고 설레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루하기도 하고 여기서 뭐 하나, 이런 생각도 들 거야. 그런데 처음에 여기 왔던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극복이 돼. 지금 너희들은 과정 속에 있는데 벌써부터 결과를 바라지 말고. 일반 학교 사람들은 대학이라는 결과가 나오니까, 졸업생들을 보면 엄청 불안해 할 것 같은데 아니더라. 훨씬 더 잘살더라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알고 꾸려 나갈 줄 아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학교에서 힘든 일도 많고 불만도 많고 지루하기도 할 텐데 그럴 때마다 처음에 왔던 그 마음, 난 여기서 결과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살아가려고 왔다는 마음을 계속 간직했으면 좋겠어.

솔직하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미리 쌤과 승룡 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사감 쌤들 방의 재미난 이야기들을 엿들으러 가볼까요?

〈미리 쌤 방 9월 9일(일) 방문자 현황〉

시각: 10:00~10:45 p.m.

방문자 수: 남 15, 여 20명

자유평 바르기	문장훈 (5학년)
빨래 경매(여자 생활관 규칙으로, 스스로 빨래를 찾아가지 않은 사람이 내는 돈 - 100원)	이지민, 문서경(1학년)
큐브하면서 놀기	안효원(1학년)
떨어진 귀걸이 붙임	강도윤 (3학년)
운동기구 하기	이건산, 황소윤(3학년)
상처 치료	하늘찬(1학년)
천연 버무리 바르기	유준상(3학년)
갑자기 책상 옆에 숨음	노시정(2학년)
시정 잡아감	은행근(3학년)
하늘찬에게 큐브 가르쳐 줌	이시은(1학년)
갑자기 노래 부름	이진주(1학년)
물병 씻음	황소윤(3학년)
미리 쌤 간지럼힘	이진주(1학년)
들락날락 하면서 수다 떨	방문자 나머지

〈승룡 쌤 방 9월 13일(목) 방문자 현황〉

시각: 9:40~10:45 p.m.

방문자 수: 남 18, 여 8명

생활관 내 방송 송룡근(2학년), 1학년 전체 남학생 회의 들락날락하면서 수다 떨: 방문자 나머지

〈미리 쌤 방 엿듣기〉

김은수(1학년, 이하 은수): 근데 나 사투리 쓰는 거 맞는 거 같아.

이예슬(1학년, 이하 예슬): 왜?

은수: 아니, 내가 내 목소리 녹음하니까 목소리가 이상하다.

예슬: 나도 녹음해서 내 목소리 들으니까 이상했어.

은수: 아니, 네 목소리는 안 이상했어.

예슬: 아니, 그게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 밖으로 나오는 소리도 듣는데 자기 머릿속에서 소리가 울린대.

은수: 아, 진짜?

예슬: 그래서 자기 목소리가 자기한테는 다르게 들린대.

은수: 그럼, 내 목소리는 어떻게 들려?

예슬: 바보 같아.

은수: 아, 그거 말고.

예슬: 에헤헤헤~

은수: 정의를 해 봐.

예슬: 정의? 붕어가 뼈끔뼈끔하는 소리?

은수: 내 목소리 좀 굵어, 가늘어? 낮아, 높아, 중간이야??

예슬: 너의 목소리는 정말 애매한 위치야.(웃음)

은수: 왜 왜 왜?!내 목소리 낮아? 높아? 중간이야?? 아, 뭐야~

예슬: 정말 애매하다. 굵진 않아. 근데 가늘지도 않아.

은수: 그럼, 중간이네~ 근데 네 목소리는 약간... 말해 봐!

예슬: 왜?

은수: 네 목소리는 약간 그런 거... 동요제에 나오는 목소리?

예슬: 말도 안 돼~ 진짜. 내 목소리가 어딜 봐서 그런 목소리냐!! 내가 그런 애들 목소리 따라 해 볼까? 안녕하세요~?? 이렇다니까!!!!

은수: 그건 말투지, 말투!!네 목소리 느낌이, 약간 청량해. 탄산음료같이.

예슬: 아하하하~ 왜 비유가 탄산음료야!!

은수: 아, 그니까 뭔가 맑은 목소리야. 그리고 효원이 목소린 약간... 애교 있는 목소리랄까??그리고 기운이 목소리는... 아, 기운이 목소리 어렵다. 진주 목소리

는 허스키해. 네 목소리는 맑아.

〈짱뽕 이야기〉

A양: 각질 제거하면 저는 당기고 막 이래요.

짱뽕(생활관 당직, 교사 대표): 응, 촉촉하긴 해. 선호 뽕이 샘플로 하라고 이만큼 주셨는데, 근데 나는 딱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는 뭐냐면, 먹는 걸 이렇게 하는 게...

강도운(3학년, 이하 도운): 먹지 마세요. 피부에 양보하세요.

김소아(3학년, 이하 소아): 뽕, 너무 피곤하게 살지 마세요.

짱뽕: 근데 그게 자꾸 보여~ 그니까 이런 거야. 목욕탕 가면 우유 이렇게 막~몸에 바르고 그러잖아~ 그러면 못 먹는 아기들... 신생아들... 이런 생각나고.

도운: 뽕, 우유는 안 좋아요.

짱뽕: 근데, 뽕들이랑 다녀 보면 다 그래. 저번에 덕산 나가서 필 뽕하고 같이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데, 필 뽕이 아이스크림을 딱 들고 있는 거야. 그러고는 “이거 안 살 거예요. 이 회사 제품은 사지 않겠어요. 이런 부도덕적인 회사에 보태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러는 거야.

소아: 근데, 그렇게 따지면 대림에선 살 게 없어요.

짱뽕: 응, 맞아. 그리고 또 희석 뽕이랑 우유 사면 굳이, “저는 서울우유를 사요, 매일우유가 아닌 서울우유를 사요.” 이렇다~ “왜요?” 하면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이러면서.

소아: 우유는 파스퇴르지.

A양: 매일우유가 맛있는데, 저지방우유가 좋아, 난.

짱뽕: 나도 담백한 거 좋아해. 그냥 우유는 좀 느끼하잖아.

A양: 근데 우유에 물 탄 것 같다고 싫어하는 사람도...

짱뽕: 난 저지방 좋아.

은수: 맛이 달라요?

A양: 약간 달라. 색깔도 약간 푸르스름한...

짱뽕: 저지방이 조금 더 담백하고 그냥 우유가 더 걸쭉하지.

A양: 우유는 끝맛이 약간 텁텁한데, 저지방우유는 안 그래.

짱뽕: 그래서 희석 뽕이 자기는 조합 것만 살 거라고, 매일우유를 안 사고 서울우유를 살 거라고 큰소리 빵빵 쳤어. 그래서 내가 그래라~ 이려고 내가 매일에서 나오는 일반 우유를 딱 고르니까 먹고 싶은 거야~ ‘살까?’ 이러는 거야. 금방 자기는 매일우유 안 살 거라고 하더니...

**사감 뽕 방에 묻어 있는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 재미있게 보셨나요? 마지막으로, 글을 쓰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사감 뽕 방에 즐거운 일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



# 일반 과자,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

한 별 기자(3학년)



그림 · 김민정(2학년)

옛날, 아주 먼 옛날. 주위에서 일반 과자를 찾아볼 수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물론 모두들 일반 과자가 무척이나 그리웠지만 가족들과 한 약속이 있기에 먹을 수도, 가져올 수도 없었어요. 몰래몰래 숨겨 와 먹는 사람들은 하나 둘씩 있었지만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이 일반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이윽고 모두의 손엔 일반 과자가 들리게 되었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어야 할까요?

이전부터 학교에서는 좋은 먹거리, 바른 먹거리를 원칙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칙은 학교에서 주는 밥과 간식에만 해당될 뿐, 현재 학생들의 실생활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규칙이 호지부지되었고, 교내의 일반 과자 반입에 대한 논쟁은 계속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도 매듭지어지지 않아 학교와 기숙사에서 누구나 당

연하다는 듯 일반 과자로 배를 채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간디 가족이 다 함께 정한 사안은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큰 힘을 발휘해야 하지만, 교내에서 일반 과자가 활개를 치고 다니듯, 간디인들의 개인적인 욕구가 가족들과의 약속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이제 대다수의 간디인들은 생활 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일반 과자에 대해 ‘일반 과자 없이는 못 산다.’고 말하며, 이전 일반 과자 반입금지 규칙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일반 과자 없이 살 수 없는 걸까요?

다음의 표에서도 보이듯이, 간디인의 70% 이상이 주말에 가장 많이 가는 곳으로 일반 과자·식품들을 취급하는 슈퍼, 대림마트를 꼽았을 만큼 일반 과자는 간디인의 생활 속으로 점점 더 깊숙이 파고들고 있습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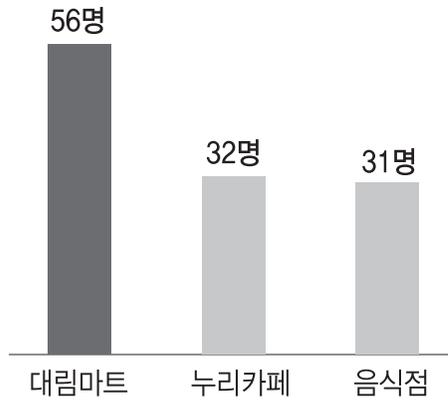
다.

설문을 통해 드러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여전히 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반 과자는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숙사 방 사람들끼리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가지는 간담회 자리에서도 일반 과자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방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기 위한 목적의 간담회가 언제부턴가 그 의미가 변질된 것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방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은 과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과자는 처음엔 이야기를 나누며 먹을 수 있는 간단한 요깃거리로 쓰였겠지만, 이젠 과자를 먹기 위해 간담회를 하는 것입니다.

간담회를 하는데 과자가 없다면 주위 사람들에게 ‘너 과자 있어?’라며 묻고 다니는 아이들. 과자만 먹고 끝나는 간담회.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기숙사 간담회는 일반 과자의 파티가 되어 버렸습니다. 오죽하면 나눠 먹기 좋게 과자 봉지 가운데부터 돌려 뜯는 간디만의 기술이 생겼겠습니까.

집에 빠뜨리고 온 짐을 보내 달라는 부탁 전화를 들어 봐도 역시 ‘맛있는 것’을 보내 달라는 멘트는 어김없이 나옵니다. 학교의 일반 과자 규칙이 명확하지 않은 까닭에 부모님들도 긴가민가하고 헛갈려 하시지만 결국엔 택배 안에 요깃거리들을 넣어 보내 주십니다. 저학년 부모님이 일반 과자를 박스째로 가져다 주신 일도 있어 말이 많았는데, 일반 과자가 ‘자제’이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치 않아 생긴 일이었습니다. 이젠 학생들이 먼저 일반 과자 문화에 대한 반성을 통해 먹지 않겠다는 약속 또는 자제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자리를 갖고 부모님들께 확실히 알려 도움을 청해야 하지 않을까요. 부모님들도 학생들의 약속을 존중해 과자 대신 따뜻한 편지를 넣어 주신다면 일반 과자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간디인 주말 방문지(복수응답 가능)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학교도 마냥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일반 과자를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고등작업장 카페 ‘딱’과 학생회 간티크(학생회가 운영하는 매점)를 내세웠다면, 이번엔 간티크와 교사가 힘을 합쳐 교내 매점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쿠폰과 줌, 용돈으로 구매 가능하고, 생협이나 한살림에서 판매하는 것과 같은 몸에 덜 해로운 과자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운영 초기 단계라 많이 부족하지만, 매점 여는 시간이 되면 줄을 서서 기다릴 만큼 학생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설문 결과, 간디인의 약 40%가 매점이 일반 과자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고, 현재 지적되고 있는 문제점인 ‘종류의 다양성’ 또한 점차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이전의 대안보다는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까요?

우선 먹지 않기로 했던 공동체의 약속을 되새기고, 학생들과 함께 공유해야 합니다. 학교에 막 들어온 1학년들은 원래 일반 과자를 먹지 않는다고 알고 있었지만, 선배들이 주말에 덕산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일반 과자를 먹거나 사 들고 오는 모습을 보고 ‘일반 과자를 먹어도 되는구나.’ 하며 자연스럽게 자신들도 일반 과자를 사 먹게 된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1, 2학년은 저학년일 때부터 교내 매점 활성화를 통해 일반 과자가 아니라 몸에 덜 해로운 과자들을 많이 접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다양한 대안을 통해 일반 과자에 대한 생각이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일반 과자를 먹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스스로 공감하고 고학년이 되어 앞장서 모범을 보인다면, 간디학교의 경우 선배의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일반 과자 자체 문화가 잘 잡힐 거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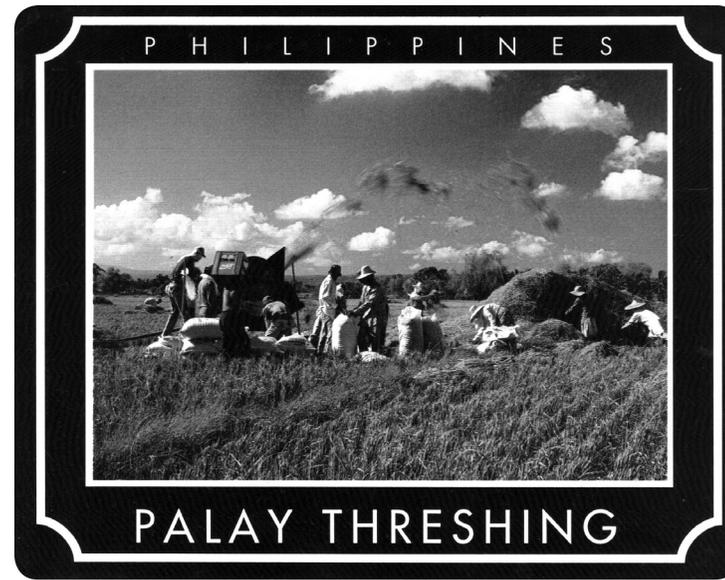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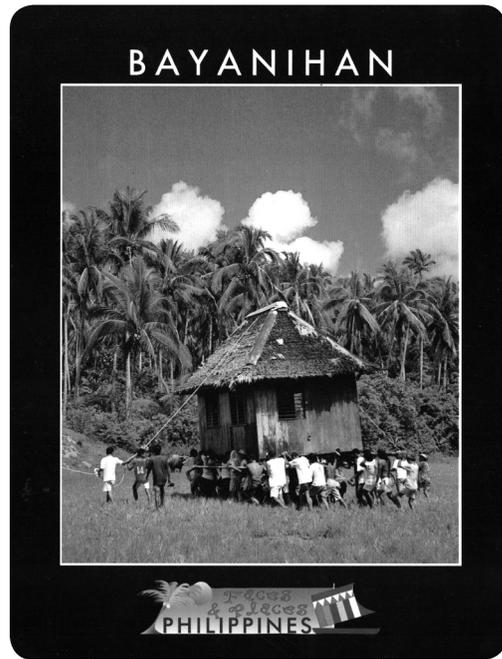
또한 기숙사 매점 운영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기숙사에서 간티크가 운영되어, 간담회 간식거리나 군것질 등을 일반 과자 대신 친환경 먹을거리로 사곤 했습니다. 그러나 남은 물량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도난이 빈번했고, 제품을 기숙사로 옮기기가 힘들어 현재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주말에 덕산에서 일반 과자를 사 들고 오는 이유가 기숙사에서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함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배고픔을 못 이겨 가는 밤에 몰래 동네 슈퍼를 가는 것과 교내 식당 털이도 줄일 수 있는 기숙사 매점 운영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담회 일반 과자 문제도 친환경 과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숙사 매점 운영을 고려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서 말한 내용 외에도 가족회의 10분 토론 등으로 간디인 모두가 필요성을 깨달아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한다면 충분히 일반 과자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더 이상 있으나마나 한 옛 규칙 ‘일반 과자 반입 금지’를 반복해 말하기보다는 가족들과 그 필요성을 되새기는 자리를 통해, 일반 과자에 대한 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배고픔으로 인해 동네 슈퍼에서 일반 과자를 사고, 식당을 털고, 친구의 물건까지도 훔치는 것을 보면 먹을 거리는 간디학교의 모든 문제의 시작과 끝입니다. 일반 과자는 누군가가 시켜서 먹고 안 먹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 일반 과자를 먹기 시작한 사람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학교 전체의 문제가 되어 버렸듯이, 일반 과자를 멈추는 것도 몇몇에서부터 시작되었지만, 그 효과는 전교생에게 미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개인의 욕구보다 공동체의 약속을 먼저 생각하는 간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필리핀에서 온 엽서



To. 일상다반사

안녕하세요~ 저는 최소은입니다!!  
 지금 여기는 필리핀 간디학교인 갈리카산예요.  
 저희는 3주 정도 이곳에 머물러 있고요, 이제는  
 곧 다음 곳으로 떠날거예요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이동도 많아지고 더 많이 지칠 것 같네요.  
 그래도 남은 일정 잘 마치고 돌아갈 것입니다!!  
 또 필리핀에서 지내면서 느끼는 거지만, 필리핀은  
 아침을 굉장히 빨리 시작해요. 그래서 지금도 전  
 잠은 힘들답니다.TT 또 필리핀 사람들 대부분은  
 되게 친절하단 것 같아요. 처음에 갈리카산 학교 근처에  
 있는 발라네시아에 갔는데 모두 저희를 보고 한국말로  
 안녕~ 이라고 해 주어서 신기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까지 살아온 3주가 안정적이고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엽서 공간이 없으니 줄일게요. 제가 학교에  
 갈 때 까지 다들 잘 계시고, 제가 학교에 들어가  
 면 제 잔여력을 들어야 하라니 지금부터라도 간담  
 다스릴 비바입니다!! From. 소은

FACES & PLACES PHILIPPINES

P.S-지금 필리핀은 "민반 강성시대"인 것 같아요  
 김정환 바보 P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곡리 92-3  
 제천간디학교 일상다반사

South Korea



"PALAY THRESHING"  
 Baliuag, Bulacan  
 Harvest time is full of fun and laughter. A sight to behold.

Photo By: Mitoy Alvarez  
 Best of the Island Photo Contest  
 March 19, 1997

4 809267 100289

To. 정한쌤 & 일상다반사 친구들 -

안녕! 필리핀에서 새끼자기 애어가고 있는  
 변영이입니다! ^^ 일상다반사는 잘 지내 모르  
 겠네! 우리는 작은 물놀이 덕분에 필리핀에  
 도착한지 2주만에 현지인들 만큼 개해졌어고  
 필리핀을 지금 우리라 비가 많이 오고 굉장히 습해TT  
 근데 지금이 그래도 1년중에 가장 덜 더운 시기래!  
 필리핀은 음식도 굉장히 맛있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친절해! 항상 웃는 얼굴로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도  
 인사를 해 주더라고! 아! 한국친구들 막 보고싶네TT  
 이 엽서 공간이 에이렇게 좁은 거 모르겠어! TT  
 조금 모두들 잘 지내구! 한국에서 반영 ~ ♥

2012.09.28

- 필리핀에서

"THE FILIPINO BAYANIHAN SPIRIT" 변영이!  
 Reflects the spirit of cooperation among Filipinos.

Photo By: Glenn G. Peralta  
 Best of the Island Photo Contest  
 March 19, 1997

FACES & PLACES PHILIPPINES



충북 제천시 덕산면 신곡리

92-3 제천간디학교 김정환

S. Korea



4 809267 100289

# 9월

이기원 기저(2학년)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저를 기억하는게 와니나 손으로 나눈 순로 복하여 응호호호 아이인 할사가기정하나 저인할정. 다자정등태다</p> <p>2</p>	<p>외롭다...</p> <p>3</p>	<p>→ X.포</p> <p>4</p>	<p>안녕!!</p> <p>5</p>	<p>★ * * * * *</p> <p>6</p>	<p>7</p>	<p>8</p>
<p>9</p>	<p>10</p>	<p>11</p>	<p>12</p>	<p>13</p>	<p>14</p>	<p>15</p>
<p>16</p>	<p>17</p>	<p>18</p>	<p>19</p>	<p>20</p>	<p>21</p>	<p>22</p>
<p>23</p>	<p>24</p>	<p>25</p>	<p>26</p>	<p>27</p>	<p>28</p>	<p>29</p>



# 10월

Sun	Mon	Tue	Wed	Thu	Fri	Sat
<p>7</p>	<p>1</p>	<p>2</p>	<p>3</p>	<p>4</p>	<p>5</p>	<p>6</p>
<p>14</p>	<p>15</p>	<p>16</p>	<p>17</p>	<p>18</p>	<p>19</p>	<p>20</p>
<p>21</p>	<p>22</p>	<p>23</p>	<p>24</p>	<p>25</p>	<p>26</p>	<p>27</p>
<p>28</p>	<p>29</p>	<p>30</p>	<p>31</p>	<p>1</p>	<p>2</p>	<p>3</p>

**9월 4일 논문 중간 발표**

매일매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머리를 쥐어짜며 열심히 논문을 쓰는 3학년 언니 오빠들의 두근두근 논문 중간 발표가 있었습니다. :-) 3학년 언니 오빠들의 긴장한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긴장되었습니다. 노력해서 쓴 흔적들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논문이라는 벽을 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 떨리네요. 3학년 언니 오빠들이 무사히 논문 발표를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9월 6일 문화의 밤 / <모던 보이> 상영**

2학기의 첫 문화의 밤!! 문화의 밤 역사상 최저 출석률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난 관객이 올 거라 기대했지만 원래의 계획과는 다르게 홍보 부족으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어요. 마을 주민 분들과 같이 보기 위해 테니스장에서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보려고 첫 문화의 밤으로 정하였으나 예상보다 날씨가 빨리 추워져서 오들오들 떨며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모던 보이>는 일제강점기 때 대한독립을 배경으로 한 영화였어요. 웃기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슬픈 옛 기억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뜻 깊은 문화의 밤이었습니다.

**9월 13일 문화의 밤 다큐멘터리 / <미친 시간> 상영**

다큐멘터리 <미친 시간>은 3학년 한 별 학생이 논문으로 기획한 문화의 밤이었습니다.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을 다룬 다큐인데, 우리나라가 가리고 싶어 하는 한국군의 진실을 보여줬습니다. 다큐에는 민간인 학살 현장에 계셨던 분들이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해 주시는 가슴 절절한 사연도 담겨 있고, 현장에 있던 한국 군인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다시 되돌리고 싶은 생각에 마음을 줄이며 영화를 봤습니다. 직접 다큐를 찍으신 감독님도 오셨는데, 감독님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더 깊이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 몸짓 동아리 '기지개'와 6학년들이 SJM 시위 현장 다녀옴**

몸짓 동아리 '기지개'와 6학년들이 간디학교를 대표하여 뜨거운 시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로 서로가 하나되어 같이 외치고, 같이 싸웠습니다. 이렇게 불평등한 사회에서 열심히 싸우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빕니다.

**9월 19일 고등과정 설명회**

3학년들의 고등과정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는 고등과정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윤하 쌤의 설명을 들었는데, 평소에 잘 하지 않던 고등과정에 대한 고민을 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9월 20일 학생총회 & 문화의 밤 / 랩하는 세 남자**

가족회의가 끝나고 2학기 학생총회를 했습니다. :-) 학생회에서 규칙과 1학기 총결산, 2학기 예산안을 발표하고, 학생회 신입 부원에게 임명장을 주는 시간이었습니다. 학생총회가 끝나고 문화의 밤이 이어졌는데 Yo! 내토 & 빅사이즈 & 술래가 보여주는 랩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손을 위아래로 흔드는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과 함께한 세 남자의 무대를 잊을 수 없습니다. 다들 세 남자의 매력에 흠뻑 빠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

**9월 21일 중등 단합 최강자전**

묘한 긴장감과 함께 중등 단합 최강자전은 시작되었습니다. 종목은 신문지 안에 들어가기, 리프팅, 림보, 노래 자랑, 얼굴로 웃기기, 프라이팬 놀이, 닭싸움, 계주 등이 있었습니다. 모두들 우승을 노리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지요. 2학년에게 지다가 닭싸움과 계주로 역전해 영광스러운 우승을 거둔 3학년은 하늘을 날 듯 기뻐했습니다. 시상식에서 1등(3학년), 2등(2학년), 3등(1학년) 상관없이 모두 수고했다며 축하해 주고 격려해 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릴 뻔했습니다. :-)





**김정환(일상다반사 담당)** - 편집실 사정으로 인해 가을 호 발행이 많이 늦었습니다. 벌써 겨울 초입에 들어왔네요.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가을 축제 폐지' 학생들의 열렬한 구원 운동(?)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보입니다. 내년 봄에 가족회의에서 끝장 토론 들어갈 기세입니다. 점점 단단히 뭉쳐지고, 발전하는 기자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가을 호도 고생 많았고, 알아서 잘들 한다고 담당 쌤 무시하지 말아 줘^^ 일상다반사 파이팅!



**김민석(1학년)** - 처음 일상다반사 기자가 되어서 인터뷰할 때도 엄청 긴장해서 다하고 난 뒤 다리에 힘이 풀린 게 기억에 남고요. 양 쌤이랑 손 쌤 두 분 다 멋지다고 느꼈습니다.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두 분 멋있었습니다. 정신이 없어서 제 시간에 인터뷰 글도 못 내고 글은 보냈는데 기자 후기랑 기자 사진도 못 보내고 이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많은 분들에게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실수 없이 깔끔하게 제 시간 안에 제 할 일 다 마치겠습니다. 일상다반사 파이팅!



**김은수(1학년)** - 처음으로 쓴 기사인데 잘 된 건지 모르겠네요. ㅎㅎㅎ 어렵고 힘들긴 했지만 이렇게 하고 나니까 완전 뿌듯해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우정(2학년)** - 이번 호 하면서 데드라인도 안 지키고 사진도 아무 생각없이 찍었다가 지적받고 그랬네요.ㅜㅜㅜ 다음 호부터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야지.ㅋㅋㅋㅋ 일상다반사 기자들 다들 수고 많았고, 편집장 헛님 언니 바쁘게 편집장 하느라 고생 많았어!!!! 아무 말도 없이 데드라인 안 지켜서 진짜 반성했어... 그리고 효원, 기원 열심히 하자!! ㅋㅋ 마지막으로, 음... 하하 오빠 고마워! ㅋㅋ



**이기원(2학년)** - 이번에 삽화 기자로 발령 난 이기원입니다. 드디어 좀 비중 있는 '간디인의 짧은 소식'을 효원과 함께 맡게 되었습니다. 그냥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 그게 어려웠어요.ㅜㅜㅜ 계속 미루고 마감 시간 맞춰 가면서 그리느라 하루 종일 매달려서 완성을 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뿌듯하고 열심히 잘한 것 같습니다. 미루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채은아, '간쭈소' 뻘어 가서 미안. 그래도 옆에서 계속 칭찬해 줘 고마워!!♡♡ 또 같이 일한 효원아, 수고했어^^ 못난 언니랑 함께하느라 고생 많았다. 정환 쌤이랑 일상다반사 기자들, 모두 모두 수고했어요!!